

# 전주시, 도시 관광 브랜드가치 '쑥쑥'

### 2012년 미술랭 가이드 최고평점 이어 론리 플래닛 아시아 대표 관광명소 선정

전통문화도시 전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관광 브랜드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주 관광 브랜드 마켓 3.0 플랜'이 추진된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국제슬로시티로 재인증된 전주가 지난 2012년 프랑스 미술랭 가이드에서 전주한옥마을이 최고 평점(별★★★★)을 받는데 이어 세계적인 여행잡지 '론리 플래닛'이 선정한 '1년 안에 가봐야 할 아시아 10대 명소' 3위에 전주가

선정돼 CNN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되는 등 전주의 도시 관광 브랜드 이미지가 국내외에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달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이달에 걸기 좋은 길기 여행길 10곳'에 전주한옥마을 들레길 '숨 길'이 선정돼 전국에 소개됐다.

전주는 이에 앞서 지난 2013년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조사한 일본관광객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지방도시 1위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같은 기관

에서 조사한 가장 가고 싶은 드라마 촬영지로 '성균관 스캔들'이 촬영된 전주향교를 선택하기도 했다.

또한 전주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전주한옥마을은 지난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원년 한국관광의 별(관광시설 부문)로 선정된데 이어 이듬해는 한국관광의 유네스코 선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관광 으뜸명소에, 2012년에는 행정자치부 브랜드세계화 시범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지난해도 인터넷 소셜커머스 기업인 '쿠광'에서 국내 내륙지역 인기 여행지 1위로 뽑혔고, 최근 모바일 네비게이션과 포털사이트 등에서 전주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전주한옥마을이 최고 인기 검색어 자리를 굳게 지키며 사계절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이처럼 전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관광 명소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론리 플래닛 한국판에서 전주를 취재할 계획이며, 이스타항공 국내지와 신한 등 대기업 사보에서도 전주관광에 대한 자원을 취재해 잡지로 발간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종합관광발전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전주시가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앞두고 지속가능한 국제관광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 종합관광발전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가 23일 시장실에서 김승수 시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전주시, 여성범죄 취약지 야간순찰활동 실시

전주시가 여성폭력·성희롱 예방 캠페인과 함께 야간 순찰활동 강화에 나서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시는 23일 양성평등사회 조성과 여성폭력 예방 등 안전한 전주 만들기 위해 전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와 전주완산·덕진경찰서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캠페인과 야간순찰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성폭력 사건과 온라인·방송 등에서의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여성비하, 혐오표현 등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불안심리가 고조됨에 따라, 폭력을 야기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남녀간 상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서부신시가지 일원과 아중체련공원 일원 등에서 양성평등 사회 환경 조성 방안, 아동·여성 대상 폭력예방과 대처법, 피해자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담은 전

단지 1300여장과 물티슈, 불펜 등 홍보물을 주변 상가와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또, 야간순찰에는 취약지 중심으로 5개조를 편성해 야간순찰 활동을 실시하며 취약지 위험환경 요인도 파악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조성과 양성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내용의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안전한 전주만들기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주시가 저출산 문제 극복과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체외수정술 및 인공수정술 등 난임(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정 중 부인이 만44세 이하이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수술을 요하는 불임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 시술비는 최대 6회(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까지로, 신선배아는 1회당 190만원, 동결배아는 1회당 60만원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신청서류는 난임시술병원에서 발급 받은 불임진단서 원본 1부와 의료보

험카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이며,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전주시보건소는 지난 2006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13년 768명, 2014년 924명, 2015년 972명, 올해 7월까지 543명을 지원하는 등 아이를 갖기 원하는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모자건강과 저출산 문제 극복 위해 예비부부 건강검진, 등 임신에서 출산, 양육 전 과정에 걸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jonju.go.kr>)를 참고하거나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063-281-628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 덕진경찰, 3D 촬영장비 도입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성구)는 23일 도내 최초로 범죄자 얼굴을 3D로 촬영하는 수법영상 촬영장비를 유치장에 설치했다.

최근 CCTV, 블랙박스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사용 급증에 따라 범행 현장 용의자 사진은 사건을 해결하는 중요한 단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3D 영상 촬영장비는 습득한 사진을 얼굴인식 시스템을 활용 비교·대조해 용의자를 특정하는 과학수사 기법으로 향후 사건 조기해결 및 미제사건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구 서장은 "3D 영상 촬영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 입체적 감각활동을 통해 범죄자들을 조기에 검거하여 평온한 치안질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덕진구, 신규 모범음식점 접수

덕진구(구청장 정태현)에서는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다음달 7일부터 1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으로 음식문화 개선사항과 음식점 환경 및 주방 위생, 서비스, 맛 등 전주시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 기준에 적합한 업소면 가능하다.

구는 신청접수 후 교수, 시민단체, 위생감시원 등 현장심사반 5명이 업소를 방문해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적합여부 심사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정할 계획이다.

기존 모범음식점 85개 업소는 신청서 접수 없이 재심사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덕진구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김영재 기자

## 덕진소방서, 논밭 소각행위 119 신고 의무화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원석)는 지난 12일 개정된 전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산림인접지역에 논과 밭을 소각 할 경우 반드시 119와 소방서에 신고해야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주거지역, 공동주택 단지, 학교 시설, 다중이용업소, 노약자시설, 의료 시설 등의 주변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에 따른 신고를 위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파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 대중교통 친절도 높인다

### 업체간 자율경쟁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전주시가 전주시내버스 업체 간 선택의 경쟁을 유도해 대중교통 친절도와 이용률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업체의 재무구조 건전화와 업체간 자율경쟁 유도, 운송사업 서비스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운송사업 안전·경영·서비스 평가 용역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전주시내버스 회사에 주는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한다.

시내버스 안전·경영·서비스 평가 용역을 통한 인센티브 차등 지급은 지난해 10월 전주 시민의 버스위원회가 제안한 사항으로, 경영합리화와 안전·운영관리, 승객만족도 등 3개 분야 16개 지표, 8개 가·감점항목으로 평가지표를 구성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용역은 운송사업의 경영개선과 안정적인 노사관계 개선, 운송서비스 개선은 물론 인센티브 차등지급 시 합리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

한 것으로, 시는 이번 용역이 시내버스 만족도 향상은 물론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용역 추진을 위해 지난 5일 (재)전북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 19일에는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시민의 버스위원회 운영진과 버스회사 관계자, 노조 관계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용역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회사관계자 및 노조측에는 용역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을 당부했다.

용역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에 나올 예정으로, 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 및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5억원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지급(안)에 따르면 용역결과 1위 업체에는 2억5000만원이 지급되고, 2위 업체에는 절반인 1억 2500만원을 지급된다. 또, 3위와 4위 업체에는 각각 7500만원과 5000만원이 지급되고, 5위 업체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김영재 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